

‘공연예술지원 선정작’ 전주 곳곳서 만난다

전주문화재단, 파사무용단 · 모던국악프로젝트 차오름 공연… 11월까지 5개 선정작 진행

‘2025 전주공연예술지원 사업’ 선정 단체들의 작품이 잇따라 무대에 오른다.

10일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에 따르면 이번에 가장 먼저 관객을 만나는 작품은 우수 레퍼토리 부문에 선정된 파사무용단의 무용극 ‘혼잣말하는 여자’다. 2018년 초연 이후 수정·보완을 거쳐 재공연되는 이번 작품은 무용과 연극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창적인 형식이 돋보인다.

‘혼잣말하는 여자’는 50년 넘게 걸여온 한국 대표 무용가이자 안무가 황미숙이 무대에 오르는 솔로 무용극으로, 한 여성의 내면과 생애 섬세하게 그려냈다.

파사무용단 황미숙 대표는 “2018년 초연했던 작품을 재가 태어나고 자란 전주에서 다시 공연할 수 있어 뜻깊다”며 “새로운 구성과 움직임 연구, 라이브 음악 등을 더해 보다 깊이 있는 무대를 준비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연은 11일 오후 3시 30분과 저녁 7시, 12일 오후 5시 2일간 3회에 걸쳐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예매는 전주티켓박스를 통해 가능하다.

두 번째 무대는 모던국악프로젝트 차오름의 창작음악극 ‘혼민정음 자음별구역’ - 말 없는 말들의 기록이다. 이 작품은 혼민정음 보급과 개혁을 둘러싼 갈등을 배경으로, 조선시대 가상의 서책을 둘러싼 이야기로 구성됐다.

모던국악프로젝트 차오름 이유빈 대표는 “전



‘혼잣말하는 여자’ 포스터

주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을 통해 초연 발표 이후 받은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작품을 정비할 기회를 얻었다”며 “준비기간 동안 서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더욱 몰입감 있는 무대로 관객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혼민정음 자음별구역’은 오는 20일 오후 5시, 전주대사습장에서 공연된다. 예매는 차오름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가능하고, 공연 당일 현장 예매도 진행된다.

이 외에도 창작초연 부문 ‘오얏꽃이 피었다’,



‘혼민정음 자음별구역’ 포스터

우수 레퍼토리 부문 ‘월매던’과 ‘단오장’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이 전주 곳곳에서 관객을 찾는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지역 공연예술 단체가 오랜 시간 다듬어 온 작품들이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무대가 마련돼 뜻깊다”며 “전주공연예술지원 사업이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창작자들에게는 지속적인 창작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종이로 존재를 말하다’ 수수청년 기획전

전주문화재단, 27일까지 이상희 한지조형작가 작품전 개최

이상희 한지조형작가 작품전 ‘PAPERED’가 오는 27일까지 전주한옥마을 전주공예품전시관 전시2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이 지역의 청년 공예작가들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수수(秀手) 청년작가 기획전’의 일환으로, 올해로 6년째를 맞는다.

10일 재단에 따르면 ‘수수’는 ‘빼어날 수(秀)와 ‘손 수(手)’를 뜻하는 말로, 이를 그대로 고유의 손맛으로 공예 세계를 창조하는 젊은 작가들의 창작을 응원하는 전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좀처럼 한지를 중심으로 한 한지조형 작업을 선보인다. 반복적으로 두드려 낸 한지 위에 작가만의 기억과 감각이 얹히며, 종이의 질감·빛·공간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작품들로 구성됐

다. 덮고 감싸며 존재를 드러내는 ‘종이’의 의미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한 이번 전시는 관람객에게 한지의 새로운 미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작가는 “‘PAPERED’는 숨기며 드러내고 덮으며 기억하는, 감싸는 행위 그 자체로 존재를 표현하는 작업”이라며 “종이는 말이 없지만 겹치고 겹치고 스며드는 과정을 통해 조용한 언어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시가 감각을 깨우고 무언가를 마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람료는 무료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관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공예품전시관 운영팀(063-281-16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6월 ‘화제의 책 200선’ 발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이재선, 이하 출판진흥원)은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하 출판전산망)을 통해 6월 ‘화제의 책 200선’을 발표했다.

‘화제의 책 200선’은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를 비롯해 전국 327개 지역서점에서 제공한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계되었으며, 6월 한 달간 가장 많이 판매된 도서를 순위별로 정리한 것이다.

6월 ‘화제의 책 200선’을 살펴보면, 성태나 작가의 소설집 ‘흔모노’가 가장 많이 판매된 도서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유시민 작가의 개정판 ‘청춘의 독서’와 김금희 작가의

‘첫 여름, 완주’,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양귀자 작가의 ‘모순’, 김영하 작가의 ‘단 한번의 삶’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지난달 상위권에 올랐던 문학사들이 지속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애란 작가의 신작 ‘안녕이라 그랬어’와 하태완 작가의 에세이 ‘우리 낙원에서 만나자’가 새롭게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전반적인 문학서 강세의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6월 전체 도서 매출액은 1,198억 원으로, 전월 1,333억 원 대비 약 10.1%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1,262억 원과 비교해도 약 5.1% 줄어든 수치다.

/오상근 기자



임경문 도예가 작품 전시' 완주서 개최

완주군이 오는 9월 30일까지 2025년 명품관광지 하반기 공예품 공모전시 당선작 전시 ‘K-명품 공예, 전통의 향기展’을 삼례문화예술촌 제4전시관에서 개최한다.

상반기 ‘폐지원의 활용’ 전시 주제에 이어 하반기 ‘전통 공예’를 주제로 열린 공모전에서 선정된 임경문 도예가의 작품 37점이 전시된다. 고려청자에서 조선 분청사기, 백자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 전 전통의 혼과 숨결을 장인의 기술로 재현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찾아가는 소리축제’ 상반기 공연 시작

전주세계소리축제, 8월 7일까지 고창·부안·임실·장수·정읍 등서 개최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이하 소리축제, 조직위원장 이왕준)가 오는 8월 7일까지 ‘찾아가는 소리축제’ 상반기 공연을 시작했다.

이에 따르면 ‘2025 찾아가는 소리축제’는 지역 문화기획자와 공연 단체, 아티스트들과 협력해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마련됐다.

첫 무대는 지난 5일 고창 석정리에서 열렸다. 국악예술단 고창에서 활동하는 소리꾼 ‘심세희’가 민요와 트로트를 넘나드는 무대를 선보였고, ‘장소영&공성길’이 7080 포크송으로 무대를 장식했다. 특히 고창 공음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공음면 난타팀’이 무대에 올라 에너지 넘치는 공연으로 시원한 여름밤을 선사했다.

이어 13일 오후 2시에는 부안 수성당에 무대가 마련된다. 임실 오일장이 열리는 임실시장 특설무대에서도 공연이 펼쳐진다. 20일 오전 11시에 전통음악과 서양 선율악기의 아름다운 조화를 선보이는 ‘살롱드국악 선율모리’가 마법 같은 음악으로 지역민들을 만난다. 함께 무대



에 오르는 소리꾼 ‘강나라’도 우리 소리의 맛을 가득 전할 예정이다.

8월 5일 오전 11시, 장수시장 특설무대에서는 ‘퓨전국악그룹 오감도’의 공연이 펼쳐진다.

상반기 마지막 공연은 8월 7일 오후 3시, 정읍 JB아우름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이날은 음악그룹 ‘센티멘탈로그’가 판소리와 성악, 아쟁과 바이올린, 가야금과 피아노 등 서로 다른 전통의 소리를 조화시켜 하나의 감성으로 표현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뒤이어 ‘타악연희원 아귀’가 전통 타악의 힘과 박진감 넘치는 무대로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장은성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버추얼 태권도 경기 운영자 자격 과정’ 아시아 최초 개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은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정원)과 함께, 9일부터 11일까지 ‘버추얼 태권도 경기 운영자 자격 과정’ (이하 자격 과정)을 세계태권도연맹 중앙훈련센터인 태권도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 의제(어젠다) 2020+5를 통해 가상 스포츠를 추진할 계획으로 양궁, 야구, 댄스 등의 종목과 함께 태권도가 격투 종목 중 유일하게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 2023’에 포함된 바 있다.

태권도진흥재단과 세계태권도연맹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가상 스포츠 흐름에 동참하고 버추얼 태권도 인프라 조성을 위해 이번 자격 과정을 운영 중으로 올해 5월 이탈리아 로마에 이어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개최하고 있다. 자격 과정에는 한국과 일본, 태국 등 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그리스, 벨기에, 세네갈, 이집트,



캐나다 등 15개국에서 22명이 참가하고 있다. 사흘간의 교육 과정에서는 ‘전신 모션 캡처 기반 장비(Refract 시스템)’를 활용해 태권도 경기 운영 실습과 가상 태권도 기술 활용, 특수상상 대차, 경기 운영 모의실험 등과 함께 필기 및 실기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공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